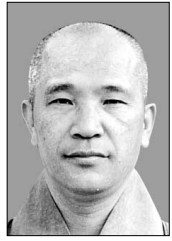


기획실장 **현고 스님**



1950년 생으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3년 승광종합사회복지관장. 1994~98년 승광사 주지. 2001년 총무원 기획실장. 현 경실련 전남협의회 상임대표, 사단법인 푸른전남21 대표이사 겸 회장.

재무부장 **태연 스님**



1958년 생으로, 혜각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4년 율허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7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78년 범어사 강원 출입. 1984년 은음암 주지. 현 울산 보현사 주지.

사회부장 **현광 스님**



1958년 생으로, 창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박사. 2000년 미국 하버드대 박사후과정 수료. 현 백양사 참사람 수련원장, 조계종 교육원 총단 수행체계연구 위원회 위원.

호법부장 **현진 스님**



1950년 생으로, 법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8년 동국대 졸업. 1977년 동국대 석림회 11대 회장, 1994년 중앙총회의원. 1998~99년 조계종 교육부장, 포교부장 역임. 현 경기 안산 선재정사 주지.

비구니 발탁

교구본사 안배

실무능력 고려

시대흐름 부응 종단변화 포석

이번 총무원 집행부 인선의 특징은 비구니 스님 발탁, 교구본사 안배, 변화 마인드와 실무능력 고려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조계종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이 부장직에 발탁됐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교계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장관 인사가 파격이라면, 탁연스님의 문화부장 임명은 '충격'에 가깝다면서도 반가움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비구니 스님의 부장직 발탁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종책에서 비구니부 신설을 약속했으나, 대신 비구니 스님을 부장직에 임명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현광스님의 사회부장 임명도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경 및 대북 문제를 다루는 사회부에 옥스퍼드와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학식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장스님은 '파격 인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종단 내에 변화를 두려워

조계종 총무원 새 집행부 구성 배경·의미

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대 흐름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인사를 통해 종단의 변화의 포석을 놓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교구본사별 안배도 두드러진다. 이번에 임명된 부·국장 15명은 범어사 백양사 송광사 법주사 마곡사 등 10여 개 본사 출신이 고루 포진돼 있다. 법장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직후 '인선위원회'를 구성해 각 본사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공언했고, 이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번 인선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변화 마인드와 실무능력을 갖춘 인사를 고루 기용했다는 점이다. 총무원장 성관스님이나 문화부장 탁연스님, 사회부장 현광스님의 발탁은 변화를 바라는 종도들의 요구를 수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총무행정 유지를 위해 실무에 밝은 현고스님을 기획실장에, 현진스님을 호법 부장에 임명하고 국장급도 2명을 유임시키는 등 실무능력을 배려했다.

집행부의 학력이 높아졌다는 점도 흥미롭다. 6명의 부장 가운데 3명이 박사급이

다. 사회부장 현광스님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박사 출신이고, 문화부장 탁연스님은 일본 입정대 박사학위 소지자다. 또 총무원장 성관스님은 현재 동국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외에도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고려대 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중이고, 감사국장 태진스님과 문화국장 심원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학위를 땀겨나 과정을 마쳤다. 재정국장 도성스님은 동국대 사회복지학 석사여서 비정치적 총무행정에 대한 기대를 낳게 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국장급 인선 명단	
총무원장	주경스님
기획국장	세정스님
감사국장	태진스님
재정국장	도성스님(유임)
문화국장	심원스님
사회국장	정건스님
호법국장	지공스님(유임)
조사국장	각원스님
상임감찰	덕문스님

안정적 총무행정 위해 국장급 2명 유임 박사급 부장 3명 종단 비정치화 기대

'사면', 법장 총무원장 첫 과제될 듯

25일 임시중앙총회서 다룰 가능성

멸빈자 포함여부 싸고 논란 예상

조계종 종정 법장스님이 올해 초 신년 하례식에서 사면 교시를 내리던 이어, 원로회의도 지난 2월말 98,99년 종단사태의 징계자를 사면하라는 유시를 발표함으로써 사면문제가 법장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후 첫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사면 문제는 25일로 예정돼 있는 임시중앙총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당선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사면할 부분이 있다면 사면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중앙총회의 동의절차가 무리없이 이뤄질 수 있는지 사면 시기 및 범위다. 사

면은 총무원장이 중앙총회의 동의를 얻어 종정에게 품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총회의원은 "총회에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면 대상자에 멸빈자 포함여부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98,99년 종단사태 때의 징계자는 멸빈(복적 불가능) 10명, 제적(징계5년 후 복적 가능) 8명, 공권정지(집행기간 중 공직취임 불가) 29명 등 모두 47명이다. 이 중 멸빈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37명이고, 이 가운데 공권정지 10년 이상자는 10명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은 20여명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멸빈자를 구제하지 않는 사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멸빈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종현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종현 제128조에는 '징계의 사면, 경감에서 멸빈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상당수 교계 관계자들은 "징정한 화합차원의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멸빈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승단 내 문제를 사회재판까지 끌고 갔던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종단 기강을 흔들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종정스님과 원로회의가 있다면 유시를 내림으로써 사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일단 사면이 된다면 그 시기는 올 부처님 오신날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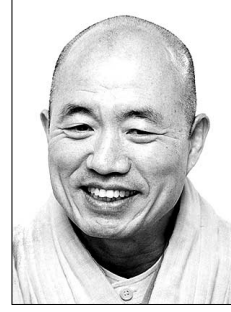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불교위상 총무원 변화에 달려

신임 총무원 총무원장 성관 스님



실천승가회 의장직을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아 총무원장직을 맡는 것이 상당히

조계종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판단체로 꼽히는 실천승가회 의장에서 총무원 수석 부장인 총무원장에 임명된 성관스님. 스님은

"총무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를 두루 기용해 지식기반 사회의 흐름을 앞서가는 지성인의 전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업무 재조정 등의 전체적인 윤곽은 올 하반기쯤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합의점을 도출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것입니다."

성관스님은 비구니 스님 인선이나 사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비구니 스님의 문화부장 인선은 기존 관념을 극복

업무 재조정 내용 하반기 윤곽 제시

부담스러우며 맡음을 열었다.

"어제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맡았으니 국민이 조계종에 바라는 바를 충족시키고 한국불교의 장자종단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성관스님은 가장 먼저 총무원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가 아닌 합의점 도출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해나가기야 하는 과제와 컷팅이며, 사면은 종단화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관스님은 1955년 생으로, 정공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국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총무원 문화부장, 호법부장과 중앙총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실천승가회 의장으로 있다. 한명우 기자

인터뷰

불교문화 대중·생활화에 주력

신임 총무원 문화부장 탁연 스님



일하겠습니다." 총무원 문화부장에 임명된 탁연스님

"뜻밖에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문화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하겠지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사업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종단 내 비구와 비구니의 차별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올법대로 한다면 스님은 돈을 받아서도 안되고, 신발을 신어서도 안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부처님 올법은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살라는 의미로 본다"고 말했다.

6살 때 어머니(산청 삼익사 벽해스님)가 출가하면서 함께 머리를 깎기도 했던 탁연스님은 결국 어머니와의 인연으로 1969

비구니 차별 시대상황따라 달라져야

은 5일 임명장을 받은 직후 문화부 운영 방침과 비구니 위상 강화에 대해 확고한 소신을 내비쳤다.

"불교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함께 불교문화의 대중화 생활화에 중점을 둘 것 입니다.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과 능력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금강원회를 졸업했다. 한명우 기자

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해인사 국립암에서 현오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49년 생으로, 76년 봉영사승가대학교 83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86년부터 10년간 일본 입정대학에서 유식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봉영사승가대 강사를 맡아 학인들을 지도해 왔으며 2년 전 금강원회를 졸업했다. 한명우 기자

종교법인 광명사 설법대학 제 1기 학인모집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땅에 전래된 이래 불교는 우리 아시아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민족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 왔습니다.

대한불교승변인협회가 이러한 민족불교의 의지와 신념을 응변으로 밝히고 실천해온지 3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의 후원과 협조로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세계불교법륜기 수여 전국승변대회」를 개최하여 600여개가 넘는 장관상과 3부요인 상이 시상되었고,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2001년부터 본 협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상표창을 비롯하여 1,000만 그루 식수의 나무를 적극후원하고 있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출된 수많은 연사들이 불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결속 사회 각 분야에서 불법홍포와 문화창달의 역군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음이 본 협회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승변인협회」는 드높은 사명 의식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의 추구와 시대변화에 걸맞는 교육철학의 정립을 위해 「설법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법대학에서는 삶과 생활의 지혜를 얻어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불교교리는 물론 응변, 설법, 서예, 도상화, 다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연차적으로 일반교양의 교과 과정도 폭넓게 개설하여 전통적 교수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통한 참된 지성인의 인격도야를 위한 배움의 장에 불자님과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동참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7년(서기2003년) 3월

대한불교승변인협회 회장 **표자원** 합장
(종교법인)설법대학 학장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 2동 44-498 **설법대학**

대한불교승변인협회 총본부 부설 Tel. 02)732-5509, 736-1895, 735-1896 / FAX. 02)723-4350

모집기간 및 개강일

- 모집기간: 불기 2547년 3월 1일 ~ 3월 30일 까지
- 개 강: 2003년 4월 12일(토) 오전 10:00

모집내용

- 정규반 50명
- 초·중·고반 50명
- 방송 성우반 20명
- 서예 사군자반 20명
- 정치 지망생반
- 스님 특별반
- 사진반
- 디도반

지원자격

- 포교사 자격희망자
- 설법을 요하는 스님
- 대학 진학 특기장학생
- 성우 지망생
- 미술전공 희망자
- 학원설립을 원하는 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사본
- 증명사진 3매
- 스님 추천서

강의일시 및 장소

- 일 시: 매주 토·일요일
- 오전 10:00~12:00
- 장 소: 광명사 1층 강의실

교수진(불교)

- **표지원 스님**
대한 불교승변인 협회장
광명사 주지, 서대문구 사암연합회장
- **무진장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제2대 불교승변인 협회장
- **표도원 스님**
조대불교승변인 협회장
국제포교사 한미사 회주

교수진(응변·설법·성우)

- **김계원** KBS 성우
- **이종대** 대한승변인 협회 전 회장
승변부문 대통령상 수상자
- **손은방** 다산정치학회 회장
승변부문 대통령상 수상
- **김수용** 대한불교승변인협회 사무총장
전국승변대회 심사위원장
- **유인배** 선거유세위원 4회연속 당조직
연설, 종교부위원장

교수진(서예·도상화)

- **지촌 허통**
(단원, 전통, 한국문화, 한국미술, 현대미술,
대한민국 미술대전)심사위원역
- **매창 인영자**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교수진(건강·사진·의식)

- **김기원** 진주산업대 생명명광명회 대표
- **이치란** 세계불교도(WFB,WFBY)
한국본부사무총장
해동불교대학 교무처장 국제포교사
- **이우탁** 대한민국 사진대전 특선
저서: 사도 사진 작가가 될 수 있다.
- **김상경 박사** 한국미래건강 연구회장
스리랑카 벨라나 국립대학
명예교수